

제목: 양재미식화: “마포집” 방문 후기

부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챙기는 클래식한 맛집

작성자: 재경기획팀 김현수 매니저

전세계 모든 직장인에게 하루 중 두 번째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기다려지는 첫 번째 시간은 퇴근시간,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시간은 하루 일과 중 중간 지점으로서 주린 배와 지친 몸, 그리고 마음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을 보낼 맛있고 분위기 있는 식당은 참 많지만, 갈수록 치솟는 물가 속에 주머니 사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남자의 식단’ 크루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빠르고, 맛있고, 값어치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식당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남자의 식단’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당은 바로 ‘마포집’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탈바꿈 중인 양재 사옥을 벗어나, 염곡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사거리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맛집, ‘마포집’이 보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고깃집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외관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점심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제육볶음, 뚝배기불고기, 그리고 된장찌개입니다. 참고로 '남자의 식단'은 육식위주, 그리고 만원 언저리의 메뉴를 추구합니다. '마포집'도 이러한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습니다.

Item	Price
돼지갈비 (250g 국내산)	15,000
목등심 (200g 국내산)	16,000
LA양념갈비 (250g 미국산)	24,000
소갈비살 (180g 미국산 / 호주산)	24,000
돼지껍데기 (200g 국내산)	12,000
제육파인 (200g 국내산)	10,000
뚝배기 (200g 국내산)	12,000
육개장 (국내산)	8,000
된장찌개 (국내산)	7,000
냉면	8,000
고기드신분	5,000
냉면	5,000
고기드신분	5,000
된장찌개	5,000
동치미국수	5,000
계란찜	5,000
소주	5,000
맥주	5,000
음료수	2,000
청하	6,000

그리고 소중한 점심시간을 1분1초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크루 멤버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수저, 젓가락, 티슈, 물을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또한 다소 칙칙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그리고 옷을 지키기 위해 '남자의 식단' 멤버에게 귀여운 앞치마는 필수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업무와 근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덧 식사가 모두 준비 완료되었네요. 보시다시피, 기본 찬으로 쌈채소도 나오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동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계란후라이도 인당 1개씩 제공됩니다. 요즘 물가에 만원 돈으로 신선한 쌈과 계란후라이가 제공되는 식당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육볶음은 주문한 수량만큼 한 개의 뚝배기에 나오고, 뚝배기불고기와 된장찌개는 인당 1 뚝배기로 나온다는 점, 주문 시 참고해주세요!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맛은 다음 사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남은 양념까지 아무지게 곁어서 먹을 정도로 황홀한 맛을 선사해준 '마포집'입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11시30분에 사옥에서 나와서 식당 도착 후 식사 완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수준으로 시간 효율적인 식단인 점 인정 하시겠죠?



그리고 식사 후 K-직장인의 필수요소인 커피 수혈을 위한 최적화 동선도 소개 드립니다. 식당에서 나와 바로 코 앞에 있는 카페인 '공존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시 12시10분 전에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남자의 식단' 첫 번째 맛집인 '마포집'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